

남원 생활인구 정책포럼 개최

지자체별 추진 중인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사례 공유 등

남원시는 4일 예촌에서 생활인구 유치 10만 명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생활인구 정책 포럼을 개

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사례를 공유하

고 생활인구 전문가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포럼 폐막에는 남원시 지리산이음 조양호 이사장, 고령군 신상진 인구정책과장, 인제군 넷강마을 박수홍 대표, 패스파인더비콕(주) 김만희 대표, 아시아교류협력센터 정운재 이사장, 남원시 안순영 기획실장이 참여해, 남원시·인제군·고령군의 생활인구 정책 및 사업사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관습역할 및 정책 제언 등을 토론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으로 남원에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가 설립되면 외국인 학생을 비롯해 산업인력, 창업 입주기업 등 2,000여 명의 관계 인구 유입으로 남원지역의 정주·생활인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정책 포럼이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3년 남원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남원시는 4일 예촌에서 생활인구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박차'

8일부터 입찰공고, 12월 착공

순창군이 농촌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부족한 농가 인력난에 속통이 트일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숙사 건립추진을 위한 사전단계인 도 원가심사를 마치고, 오는 8일부터 입찰공고를 실시해 이달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전북형 외국인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포함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으며, 순창읍 옛 정수장 일대에 약 50명이 수용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등 기숙시설을 건립해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지 확보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도모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부족한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순창군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MOU를 체결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 밖에도 군은 동농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농촌일손돕기, 고령 영세농영농비 지원사업 등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숙사 건립을 통해 농촌지역 근로환경 및 주거 여건 등을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 군정목표인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내년 예산안 심사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회복과 시민 생활 활력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김정현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 남원시 전체 청년에 대한 분석이 없음을 지적하고, 강인식 부위원장은 수급자 탈락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주문했다.

손중열 위원은 합파우 아트밸리 사업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된 이후 추진이 더딤을 지적하고, 김길수 위원은 노후 벽화 폐기사업은 계속 발생될 문제로 추후에 조형물, 타일 등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오동환 위원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내용을 점검했으며, 이미선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아동복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오창숙 위원은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확대에 따른 산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할 것과 종합스포츠타운에 씨름장 조성 제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내년도 파종 벼 보급중 신청

20일까지 관할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총 6품종 신청 접수

임실군이 2023년산 벼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4일 군에 따르면 벼 보급종 품종인 총 6품종(신동진, 참동진, 안평, 해당, 해품, 동진찰)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관할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들 6품종 이외의 타지역에서 공급이 되는 품종은 시·도 단위 신청이 끝난 후 2024년 1월 2일부터 잔량이 있는 종자에 한해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종자 공급은 공급량이 확정된 후 2024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지역 농협으로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기상 및 정선 상황에 따라서 공급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종자는 1포에 20kg 단위로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에 확정되는 12월 말 이후 별도 통지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종자는 이중 소득으로 인한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되며 벼 육묘 상자에 파종 전 키다리병·도열병 등 종자감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하여 사용해야 한다.

종자 공급량이 확정되어 수송지사가 되면 물량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고, 단순 변심이나 품종 및 수량 오류의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공급 시 혼선을 막기 위해 신청자는 반드시 농가명을 입력해야 한다. 특히 정부 보급종은 체계적으로 생산되는 종자로 순도가 높고 품종의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니 품종별 특성 및 용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오는 20일 까지 파종 벼 보급종을 신청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농가에 우량종자 공급 확대와 신품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농기센터, 쌀 소비 촉진 위한 기술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남원시 관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쌀 소비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가루쌀을 이용한 다양한 제과점(베이커리) 후식(디저트) 교육은 4일부터 27일까지 매주 2회 각 8회의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쌀가루에 관심이 많은 남원시 거주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며, 남원에서 생산한 가루쌀(바로미2) 품종의 가루미를 이용하여 쌀 휘낭시에, 쌀 티그레, 과일 쌀 찹쌀떡, 쌀쿠키 등을 이룬 및 실습을 병행해 만들고 있다. 바로미2 가루미는 일반 쌀 전문 구조와는 달리 밀가루와 거의 유사한 가루 크기로 등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 사업 선정

남원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3개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최종 8개 분야 12개 사업에 9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중에 신중년 4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미취업자이면서 해당 업무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이나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참여자에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급 1만1,000원~1만6,000원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는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3개 사업은 옷칠 목공예 산업 인력양성과 마을 공방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목공예) 관리 매니저', 다문화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및 국적 취득에 도움을 줄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맞춤 방문교육',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도인지 장애자와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할 '남원 ON 건강플래너 사업에 7명의 일자리를 추가 확보, 내년도 총 40명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임실군기독교연합회주관으로 임실시장 특설무대에서 최근 '2023년 성탄 트리 점등식' 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실군, '희망을 밝히는 성탄 트리' 점등

임실군이 임실군기독교연합회(회장 최성화) 주관으로 임실시장 특설무대에서 최근 '2023년 성탄 트리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점등식은 심 민 군수를 비롯한 목회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와 함께 성탄 트리 점등식 등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군민들에게 전달했다.

최성화 임실군기독교연합회장은 "성탄의 기쁨과 따뜻한 마음을 군민들과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트리와 함께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우리가 함께 환하게 밝힌 성탄 트리의 불빛이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나눔의 불빛이 되고 군민들의 마음속을 환하게 밝혀 내일의 한 걸음을 뚝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탄 트리는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 세 곳에 설치했으며, 내년 1월 5일까지 환하게 불을 밝힐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